

귀성길 교대운전 사고 나면 '낭패' 보험계약 내용 꼼꼼히 챙겨야

귀성길 차가 밀려 파괴하다고 자동차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가족이나 친지에게 운전대를 맡겼다가 사고가 나면 폐가망신할 수 있다.

A(25)씨는 지난 5월8일 자동차를 몰고 강원도 정선에서 서둘러 돌아오다 경기도 광주 부근 제2중부고속도로에서 앞차를 추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하는 대형사고를 냈다.

A씨의 보호자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가입한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연령 만 26세 이상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손해보험사의 답변을 듣고 깜짝 놀랐다.

A씨와 보호자는 자동차보험 청약서에 서명할 당시 운전자 연령한정 운전 특별약관에 대한 설명을 듣지도 못했는데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그러나 3일 이들이 '만 26세 이상 운전'이 기재된 보험계약 청약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석 귀성길이나 귀경길에 교대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보험계약 내용을 챙기지 않고 아무에게나 운전대를 맡겼다는 폐가망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일선 학교 상당수가 개천절과 추석연휴를 전후해 2일과 4일을 효도방학 명목으로 휴업하면서 저소득층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방안을 마련치 않아 수만명에 달하는 지원대상 학생들이 배를 끓게 됐다.

특히 광주의 경우 학기 중 시교육청으로부터 급식지원을 받는 학생이 2만900여명에 달하지만, 공휴일에 각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급식지원을 받는 학생은 4천500명에 불과해 1만6천400여명의 학생은 4일에 걸친 추석연휴 기간 동안 스스로 점심을 해결해야 할 처지다.

3일 광주시·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초등학교 134곳 중 109곳(81.3%), 중학교 79곳 중 67곳(84.8%), 고등학교 61곳 중 14곳(23%) 등 초·중·고교 282곳 중 190곳(67.4%)이 4일 효

도방학 명목으로 휴업한다. 2일과 4일 모두 휴업한 학교도 초등학교 36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3곳 등 41곳에 달한다.

전남도

추석연휴 하루 전인 4일, 초등학교 456곳 중 253곳(55.5%), 중학교 249곳 중 166곳(67.7%), 고등학교 151곳 중 78곳(51.6%) 등 전체 865개교 중 497곳(57.5%)이 휴업한다. 2일과 4일 모두 쉬는 학교도 초등학교 176곳, 중학교 53곳, 고등학교 25곳 등 254곳에 이른다.

2일과 4일 휴업한 학교의 급식은 모두 중단됐다.

하지만 이들 학교는 통상적으로 개교 기념일·소풍·체육대회 등 공식적인 학교행사로 급식이 없는 '비급식'날, 급식을 대신할 수 있는 음식물을 지원대상 학생들에게 나눠줬던 것과는 달리 2일과 4일에는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았다. 급식중단으로 4일 점심을 거르게 된 학생 수는 광주 1만4천여명, 전남 1만6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선 학교에서는 비급식 날의 급식지원을 위해 분기별로 지역교육청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공휴일이나 방학 중에는 각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식아동 지원을 하고 있다.

급식지원을 담당하는 동부·서부교육청 담당자들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2일과 4일 휴업한 학교 대부분이 비급식일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광주 모 중학교 행정실장은 "공식적인 학교 행사가 아닌 일시 휴업으로 급식이 중단돼 급식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광주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도 "비급식일 지원이 없어 급식지원대상 14명이 4일 스스로 점심을 해결해야 할 처지가 됐다"며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최재호·황태종기자 lion@kwangju.co.kr



광주~무안 간 고속도로 함평 JCT 구간의 무너진 교량. 지지대가 콘크리트 무게를 이기지 못해 발생한 붕괴사고로 인부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서해대교 30중 추돌사고 11명 사망... 54명 중경상

3일 경기도 평택 부근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서해대교에서 30중 연쇄추돌사고가 발생, 11명이 사망하고 5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날 오전 7시50분께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목포기점 279.8km) 서해대교 2차로에서 12t 화물차량(운전자 이모·48)이 1t 트럭(운전자 김모·54)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버스·화물트럭 등 30여 대가 연쇄 추돌해 20여 대의

차량에 화재가 발생, 김광민(39·인천시 남구 주안동)씨 등 11명이 사망하고 54명이 중경상을 입고 극복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가 커던 이유는 추돌과정에서 화물차 등의 연료 탱크가 터지면서 트럭·버스·승용차·탱크트럭 등이 불길에 휩싸였고, 공장에서 자출고된 승용차 6대를 살은 대형 트레일러마저 전소됐기 때문이다.

이 사고로 교량 위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김모(44)씨 등 인부 5명이 7m 아래 땅으로 추락, 김씨와 이모(44)씨 등 3명이 늑골과 허리 등을

동, 진화 및 구조작업을 펼쳤으나 사망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 사고로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방면이 오후까지 전면통제되면서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어 추석연휴를 맞아 고향을 가는 귀성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날 서해대교에는 새벽 3시부터 사고가 발생한 오전 7시50분까지 시정거리 100m 안팎의 짙은 안개가 긴 상태였다.

이 때문에 도로공사는 '안개 주의 감속운행'이라는 문자서비스를 고속도로상에 설치된 교통정보안내전광판을 통해 계속 내보내면서 차량 속도를 평소보다 감속 운행도록 했으나, 사고를 일으킨 25t 대형 트럭이나 버스 등은 고속으로 질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교량 위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김모(44)씨 등 인부 5명이 7m 아래 땅으로 추락, 김씨와 이모(44)씨 등 3명이 늑골과 허리 등을

/연합뉴스

광주~무안 간 고속도로 공사현장

교량 붕괴 5명 부상

광주~무안 간 고속도로 공사 현장의 교량이 붕괴, 인부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3일 새벽 4시46분께 함평군 함평읍 성남리 광주~무안 간 고속도로 함평 JCT(Junction·고속도로 교차로) 교량 공사현장에서 교량 일부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교량 위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김모(44)씨 등 인부 5명이 7m 아래 땅으로 추락, 김씨와 이모(44)씨 등 3명이 늑골과 허리 등을

크게 다쳤다. 최모(50)씨 등 2명은 팔과 다리에 타박상을 입고 무언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붕괴사고가 난 함평 JCT 교량은 길이 41m·폭 13.6m로, 교량 중간지점 2차선 15m가 모두 붕괴됐다.

이상대 남광토건 현장 소장은 "지자체가 규격 제품으로, 구조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광주 간 고속도로 1공구는 지난 2002년 12월 착공돼 현재 공정률 72%로, 내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합평=박영진기자 pyj4079@

나우침
6943
김홍우



찜질방서 10대 소녀 더듬다 '덜미'



○...술에 취한 30대
가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는 10대 소녀의
몸을 뒤들어 경찰서행.

○...3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안모(30·광주시 북구 오치동)씨는 2일 오전 8시20분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H찜질방에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이모(19·광주시 북구 운암동)양의 가슴을 만지작거렸다는 것.

○...안씨는 이양의 비명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 찜질방 내 손님들에게 불집혀 경찰에 인계됐는데 "술에 취해 잠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선처를 호소.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침아된 구조물복원 및 연락망재반 강화공법의 신개념

사무용 가구의 모든 것

클릭한방으로
www.hanboGAGU.com

사무용 가구
제작
설치
판매
02-2211-0100

사무용 멀티 전문상점 토지 광주총판

TUCH
사무용 멀티
제작
설치
판매
02-2211-0100